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⑱ 경북 경주시 골굴사 고로쇠나무

쓸데없는 지식이 내는 편견에 발차기를

작년 '다큐 3일'에서 골굴사를 보았다. 가보지 않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접했던 영상들이 기억이 났다. 한국의 소림사 혹은 둔황석굴이라는 수식어 때문이었다. 두 군데 다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 한 군데 방문으로 갈증을 풀고 싶었다.

낮은 담장 바깥으로 삐죽 나온 차량 통제용 스텐 자바라 대문 멀리 일주문이 보이는 것 같아 서둘러 걸으려는데, 욱신거린 듯 멈칫한다. 발차기, 주먹 지르기 모습을 하고 있는 스님 조각상들이 여느 절에서 찾으려고 했던 고요를 날려버린다. 그런데 오히려 안온해지는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식을 방해하려는 악귀를 그들이 막아줄 것 같아서다.

함월산 골굴사 편액 아래를 통과하려는데 양옆으로 금강역사가 불끈 힘을 주고 있다. 정말로 여기서 해코지 당할 리는 없을 것 같아 지극히 평온해진다. 하지만 두 안내글을 보고는 지금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지 집중하려 애쓴다.

하나는 '원효가 다녀간, 그 길 위에 서다'이다. 일부분만 옮겨본다.

"원효가 교화한 사상으로는 인간의 본래 심성인 일심으로 돌아가자는 일심사상, 모두가 실제로 돌아가면 하나로 만난다는 화쟁사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무애사상이 대표적이다. 말년에는 왕궁에서 〈금강삼매경〉을 강의하였다."

사찰에서 몸을 쓰는 선무도 풍경이 이색적이어서 왔는데, 느닷없이 그 어렵고도 위대한 원효대사를 마주하니 지끈거리면서도 숙연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효대사는 신라 신문왕 6년 70세의 나이로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혈사가 바로 골굴사로 추정이 된다는 말에 민중의 거리에서 훨훨 날았던 분이 이곳에서 추구했던 정신세계와 하늘로 발을 날리는 수행을 통해 찾으려는 지금의 정신세계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궁금해진다.

그러면서도 골굴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형의 특징을 말해주는 안내글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옮겨놓는다. 이질의 지각을 만들어낸 구멍 송송 뚫린 모습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쓴 과학적 인식 글이기 때문이다.

"골굴암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창건된 자연석굴 사원이다. 골굴암 일대는 신생대에 폭발한 화산 분화로 나온 뜨거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융기로 올라간 화강암 덩어리가 대부분인 우리 산에서 오랜 세월 풍화에 의해 크기가 다양한 오목의 구멍을 내는 현상을 타포니라고 한다는데, 이 작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을 보려고 서두른다. 그런데 계속 오르는 비탈이라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구한다. 동영상에서 본 선무도 수행자들이 물구나무를 서서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웅보(雄步)라고 해서 곰이 걸음을 걷는 방법으로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 네 발로 걷는 힘찬 역동을. 하지만 들려오는 건 가쁜 숨소리뿐이라 저질 체력을 원망하며 고개를 들고 그늘로 숨어들어가 나무를 보는데, 골굴사와 어울리는 듯한 고로쇠나무가 많이 눈에 띈다.



경주 골굴사 고로쇠나무. 고로쇠나무 가지 끝에서 마애여래좌상이 미소 짓고 있다.

〈우리 나무 이름 사전〉에 나오는 설명을 옮겨온다.

"고로쇠나무란 이름은 신라 말의 승려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유명한 도선국사의 일화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도선국사가 오랫동안 좌선하다가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아 당황하였다. 마침 부러진 나뭇가지에 물이 맺혀 있어 이를 받아 마시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쭉 펴졌다고 한다. 이후 이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 뼈에 좋다는 의미로 나무 이름을 골리수(骨利水, 骨利樹)라 하다가 고로쇠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로쇠나무 수액은 경칩 전후에 채취하며 약간 달큼한 맛이 난다.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는 가장 굵고 크게 자란다. 팔만대장경 경판 등에도 일부 이용되었다."

연관성이 너무 짙다. 선무도 기초체력 과정의 기본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래서 고로쇠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았을까? 상쾌한 생각이 들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웅보전에 올라 삼배를 하면서 무엇이든 잊으려고 한다. 그러고는 법당굴에서 울려나오는 독경소리에 근심을 놓다가 난간을 붙잡고 응회암 촉감을 느낀다. 순간 무섬증이 일지만 멀리 수많은 민중들과 감포 앞바다 문무대왕수중릉을 굽어보고 있는 절벽의 마애여래좌상 미소를 받아들이니 편안해진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 고로쇠나무 앞에 다시 서는데, 그곳에 계신 문화해설사가 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곳 나무들은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자연스레 씨들이 날아와 숲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활엽수, 침엽수, 교목, 관목, 풀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 얼른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 자연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본래공심(本來空心)인데, 그래서 무생심(無生心)인데, 쓸데없는 지식이 편견의 마음을 내어 어지럽기만 하다. 하산 길 끝자락 고로쇠나무에 가을 단풍이 벌써 얹혀지는 것 같다. 나가다가 발차기에 볼이라도 대면 비워질까. 어질어질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⑰ 김선우의 '입설단비'

팔뚝이라도 끊어서 가고 싶은 곳

입설단비(立雪斷臂)/ 김선우

2조(二祖) 혜가는 눈 속에서 자기 팔뚝을 잘라 바치며
달마에게 도(道) 공부 하기를 청했다는데
나는 무슨 그리 독한 비원도 이미 없고
단지 조금 고적한 아침의 그림자를 원할 뿐
아름다운 것의 슬픔을 아는 사람을 만나
밤 깊도록 겨울 숲 작은 움막에서
생나뭇가지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묵묵히 서로의 술잔을 채우거나 비우며

다음날 아침이면 자기 팔뚝을 잘라 들고 선
정한 눈빛의 나무 하나 찾아서
그가 흘린 피로 따뜻하게 녹아 있는
동그라한 아침의 그림자 속으로 지빠귀 한 마리
종종 걸어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싶을 뿐
작은 새의 부리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손가락 하나 물고 날아가는 것을
고적하게 바라보고 싶을 뿐

그리하여 어쩌면 나도 꼭 저 나무처럼
파묻힐 듯 어느 흰눈 오시는 날
마다 않고 흰눈을 맞이하여 그득그득 견디어주다가
드디어는 팔뚝 하나를 잘라 들고
다만 고요히 서 있어 보고 싶은 것이다

작은 새의 부리에 손마디 하나쯤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김선우 시집,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입설단비(立雪斷臂). '어깨를 끊고 눈 속에 서 있다'. 설중단비(雪中斷臂)란 말도 같이 쓰인다. 본 감상에 들기 전, 선시 한 편 훑고 가자. 시를 흡수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눈 속에서 괴로움 잊고 팔 끊어 구하니/ 마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 편하구나./ 훗날 편안히 앉아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이여/ 뼈를 부수고 몸을 잊어도 보답하기에는 모자라네.[入雪忘勞斷臂求(입설망로단비구)/ 覓心無處始心休(멱심무처시심휴)/ 後來安坐平懷者(후래안좌평회자)/ 粉骨亡身未足酬(분골망신미족수)]"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의 〈전법보기(傳法寶記)〉에 나오는 선시다. 김선우 시인은 이 선시와 이 선시에 얽힌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입설단비'를 썼다. 〈혜가(慧可)의 단비구법(斷臂求法)〉[혜가단비(慧可斷臂)]으로 유명한 이야기다.

초조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좌선을 할 때 일이다. 어느 날 신광(神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신광은 많은 서적을 두루 섭렵했고, 남들에게 현묘(玄妙)한 진리를 연설해 주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뭔가에 막혀 있어 시원치가 않았다.

신광은 달마 대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배움을 얻고자 아침저녁으로 시봉했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노상 단정하게 앉아만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신광은 생각했다. '옛사람은 도를 구할 때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뽑아냈다.' 그리곤 어느 눈 내리는 날,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도록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에 달마는 고개를 힐끗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그대가 눈 속에 서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에 신광은 두말없이 자기 팔뚝을 끊어 달마 대사에게 바쳤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오히려 꾸짖었다. "부처님이 최초에 도를 구하실 때 법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으셨다. 그대가 지금 내 앞에서 팔뚝을 끊었으나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대가 이미 그렇게 하니 내가 그대의 이름을 혜가라고 바꾸어 주겠노라." 혜가(신광)가 물었다. "부처님의 묘한 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말했다. "부처님의 법인(法印)은 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혜가는 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저를 편안케 해 주소서."/ "그럼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편케 해 주리라."/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을 벌써 편케 해 주었느니라."

혜가는 법안(法眼)이 활짝 열렸다. 그리곤 달마 대사로부터 발우와 가사를 전해 받고 조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안심법문(安心法門)이다. 〈혜가(慧可)의 단비구법(斷臂求法)〉[혜가단비(慧可斷臂)]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 선가뿐만 아니라 선시와 문학적 소재로 널리 알려졌다. 이젠 식상함마저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선우 시인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식상한 내용을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 놓았다. 김선우 시인이 불교 공부를 매우 깊게 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우선 입설단비(立雪斷臂)다. 김선우 시인은 어느 폭설이 내리는 날 밤, 눈의 무게를 못 견뎌 생나뭇가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곤 다음 날 아침 "자기 팔뚝을 잘라 들고 선/ 정한 눈빛의 나무 하나"를 보고 "그가 (자신이 밤새) 흘린 피로 따뜻하게 녹아 있는/ 동그라한 아침의 그림자 속으로 지빠귀 한 마리/ 종종 걸어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싶을 뿐/ 작은 새의 부리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손가락 하나 물고 날아가는 것을/ 고적하게 바라보고 싶을 뿐// 그리하여 어쩌면 나도 꼭 저 나무처럼/ 파묻힐 듯 어느 흰눈 오시는 날/ 마다 않고 흰눈을 맞이하여 그득그득 견디어주다가/ 드디어는 팔뚝 하나를 잘라 들고/ 다만 고요히 서 있어 보고 싶다"고 자신의 구법(求法)의 마음을 "고적하게",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있다. 김 시인은 이미 "생나뭇가지"처럼 자신의 팔뚝을 끊어 득도(得道)를 이룬 것이다. 같은 시집에 실린 그의 또 다른 시 〈다래사리〉에 그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한 날/ 이천오백 년 전의 이빨이 유리창 안쪽의 허방을 씹고 있었네/ 무슨 말씀인가를 물으시는 듯하여/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금니의 기억을 가진/ 잘 닦여진 이빨 몇낱이었을 뿐// 돌아나오는 한겨울 길섶을 지나다/ 차갑게 언 다래나무 덩굴에 손등을 긁혔네/ 곱사등이 나무덩굴이 매달고 있던 / 쪼글쪼글한 다래 열매 몇낱/ 내 허방을 때리며 툭, 떨어졌는데// 이상도 해라/ 잦은 폭설에 짱짱하게 얼며 풀리며/ 눈발 속에 뜨거워진 열매 몇낱이/ 쪼글거리는 등신불 같았네 〈후략〉" – 김선우의 '다래사리' 전문

그렇다. 김선우 시인에겐 이제 모든 사물이, 상황이, 사람이 처처불상(處處佛像)이요, 사사불공(事事佛供)이다. 불교를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시정신으로 빛나게 해준(해주는) 김선우 시인에게, 허리, 깊숙이, 숙인다.

〈불교문학연구소장〉

